



보도 일시	<전매체> 3. 7.(화) 14:00	배포 일시	-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

담당 부서	소상공인정책관 소상공인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배석희 (044-204-7820)
		담당자	서기관	김성훈 (044-204-7823)
	글로벌성장정책관 인력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동원 (044-204-7440)
		담당자	서기관	문종원 (044-204-7442)

이영 장관, 소상공인·전통시장 민생 해결사로 나선다

- 소상공인·전통시장 민생 간담회 참석 -

- ☐ 이영 장관, 소상공인·전통시장 민생 간담회에 참석하여 민생현안에 대한 업계 애로·건의를 전방위적으로 청취
- ☐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가액한도 상향 검토, 전국민 소비축제인 동행축제 확대 개최 등 소비심리 활성화에 총력

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3월 7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서울 홍대 공부(스터디)카페를 방문하여 소상공인·자영업자·전통시장 업계 관계자들, 전문가들을 만나 민생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.

< 소상공인·전통시장 민생 간담회 개요 >

- (일시) '23. 3. 7(화), 14:00 ~ 15:30
- (장소) 서울 홍대 티플레이스(공부(스터디)카페, 소상공인)
- (참석) 이영 장관, 소상공인·전통시장 업계·전문가 등 20여명

이날 간담회는 고금리·고물가, 소비위축, 노동 등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경영애로를 청취하고,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·자영업자·전통시장 상인들은 코로나19를 견뎌냈음에도 여전히 경영환경이 어렵다고 전하면서, 전기·가스 등 공공요금 부담 경감, 소상공인에 대한 인력지원책 마련, 소상공인 매출 촉진, 저금리 자금 확대 등을 건의했다.

이 자리에서 이영 장관은 “지난 2월 15일 대통령 주재 제1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전기·가스요금 분할납부, 소상공인 신용보증 2조원 추가 공급, 정책융자 신속집행 등 소상공인·자영업자를 위한 민생방안을 1차적으로 마련했다”면서,

“그밖에도 물가상승·소비위축 등을 고려하여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상 식사비 가액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해달라고 강력히 건의하고, 소상공인이 에너지효율이 높은 설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활용해 도입비, 교육, 상담(컨설팅)을 지원하는 것을 새롭게 추진하겠다”고 말했다.

한편, 중소벤처기업부는 민생 간담회에서 수렴한 현장애로·건의사항들을 모아 검토하여 올해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는 「제2차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(2023~2025)」에 반영할 계획이며,

앞으로도 민생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업계의 목소리를 지속적이고 폭넓게 수용해나갈 예정이다.